

Sermon Notes:

서론: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

본론:

1. 하나님의 비밀 (mystery, not secret)
 - 가.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
 - 나. 선민인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불신 (완악함)
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까지
‘더러’의 해석 (in part) -> 칼빈의 긍정적 믿음
2.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
 - 가. 변화된 자기 자신
 - 나. 구약의 예언 말씀 (v.26-27): 사 59:20-21, 27:9 절 인용
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님 -> 상당히 많은 숫자
3. 하나님께 후회가 있는가?
 - 가. 후회하심이 없음 (v.29)
 - 나. 후회의 표현: 창 6:6, 삼상 15:11
4.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
 - 가. 바울도 사역을 시작한 후 알게 됨
 - 나. 측량치 못함 (v.33) -> 교만해서는 안 됨 (사 55:8-9)
천국 경험에 대한 바울의 자세 (고후 12 장)
비밀을 아는 자의 진정한 겸손의 고백 (v.36)

결론: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 살다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살아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귀한 그릇들이 되십시오!

암송구절: 로마서 11 장 36 절

‘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’

Memo/Reflection:

1.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는가?
2.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는가?
3.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?